

# 「적성의전」에 나타난 유희 모티프

문영진(전북대)

## 〈목 차〉

- |                   |                       |
|-------------------|-----------------------|
| 1. 문제 의식          | 3. 유희 모티프의 의미와 구성의 문제 |
| 2. 서사 내부의 단절과 불일치 | 4. 결론                 |

## 1. 문제 의식

「적성의전」은 조선 후기 이래 꽤 널리 읽힌 소설에 속한다. 70년대의 연구에 의하면 「적성의전」은 방각본, 활자본 출간 횟수에서 전체 9위권에 속할 정도로 널리 읽힌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적성의전」의 대중적 인기도는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 「조용전」, 「소대성전」이나 「홍길동전」보다는 아래에 위치하지만, 유명한 「유충렬전」이나 「사씨남정기」, 심지어 「홍부전」, 「장화홍련전」, 「토끼전」, 「숙향전」보다는 앞서서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sup>1)</sup>.

「적성의전」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상당한 분량에 이르고 있다. 초창기에는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자리에서 심사 과정에서 완성도 낮은 원고를 꼼꼼하게 읽고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1)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85-286면.

작품의 설화나 근원 탐색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작품 구조 연구를 거쳐서 이제는 사회학적 연구와 서지적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적성의전』에 대한 연구는 그 양과 질에서 꾸준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초창기의 연구는 소설사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한용운이 최초로 이 작품의 원천을 거론한 이래<sup>2)</sup>, 본격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는 김태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태준은 이 작품이, ‘효성’과 ‘개인’이라는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심청전』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천 취약(取藥)의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점과 ‘서천’이 상상 세계라는 점, 『로빈슨 크루소』나 (『천일야화』의) 『신밧드의 모험』과 같은 ‘표류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작품이 광대한 공간적 범위에 걸쳐 있다는 점 등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 작품이 『김태자전』을 후신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sup>3)</sup>. 이후의 연구사는 한용운이나 김태준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sup>4)</sup> 말하자면 다음 세대의 학자들의 연구는 초기 연구가 보여 준 설화와의 관련성이나 소설의 원천 탐색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환은 『적성의전』의 근원 설화의 다양한 원천과 계보를 탐구했다. 인도의 설화와 연관을 면밀하게 탐구한 이 연구는 차후 『적성의전』 연구에서 중요한 거름뭇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5)</sup>. 1980, 90년대를 거치고 연구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연구의 방향은 방법론적인 진전과 함께 이전의 연구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양한석은 『적성의전』의 탐색 주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 연구는 프라이의 신화 비평 이론을 씨줄로 하고 오든 계열의 탐색 주지를 날줄로 하여 『적성의전』의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해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6)</sup>.

2) 한용운, 『역경의 급무』(1937), 『한용운 전집 2(중보판)』, 신구문화사, 1979, 225면.

3)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41~143면.

4)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다음을 들 수 있다. 주왕산, 『조선 고대 소설사』, 정음사, 1950; 김기동, 『李朝 時代 小說論』, 반도출판사, 1974; 김광순, 『한국고소설사』, 국학자료원, 2001.

5) 인권환, 「<적성의전> 근원 설화 연구-인도 설화의 한국적 전개-」, 『인문론집』 8, 고려대학교, 1967, 279~326면.

6) 양한석, 「<적성의전>에 나타난 탐색 주지」,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1981.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는 보다 구체화되었다. 최정락은 「적성의전」의 모티프를 탐색 모티프, 결연 모티프, 형제 갈등 모티프로 나누고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품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가를 상세하게 다루었다<sup>7)</sup>. 조춘호는 「적성의전」에서 강조되는 ‘효제’ 모티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토대로 밝혔다<sup>8)</sup>. 이 두 연구는 형식주의적 엄밀성과 반영론적 측면을 결합시켜서 과거에 주목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해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필경 이들 연구의 사이에 조동일<sup>9)</sup>이나 임형택<sup>10)</sup>의 연구가 나름의 작용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고전 소설에는 설화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울러 현실주의적 요소도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고전문학 연구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준 바 있다<sup>11)</sup>. 「적성의전」에 대한 김현양의 연구도 이러한 현실주의적 연구의 흐름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적성의전」에서 ‘화이론’의 모습을 읽어낸다. 그는 안평국 왕자가 단지 오랑캐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유교 윤리의 가치를 실현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선 후기의 철학 논의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여기서 화이론(華夷論)이 상대화되어 가는 모습을 실제 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12)</sup>.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적성의전」에 대한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을 내적으로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석사 논문들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형제 갈등의 모습을 다른 작품(「창선감의록」)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든지<sup>13)</sup>, 「적성의전」의 현실적 요소를 면밀하게 다룬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sup>14)</sup>. 김효실의 연구가 형제 갈등의 저변에 놓인 심

7) 최정락, 「적성의전」, 『韓國 古典小說 作品論』, 집문당, 1990, 805~819면.

8) 조춘호, 「〈적성의전〉 연구」, 『국어 교육 연구』 15, 경북대 국어교육과, 1993, 83~107면.

9) 예컨대,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 『계명 논총』 5, 1969.

10) 예컨대, 임형택, 「홍부전의 현실성에 관한 연구」, 『문화비평』 4, 아한학회, 1969.

11) 다음 연구도 이러한 흐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택, 「고전소설의 사회와 인간」,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12) 김현양, 「조선 후기 華夷觀의 동향과 <적성의전>」, 『연세어문학』 25, 1993, 157~183면.

13) 김효실, 「고소설에 나타난 형제 갈등 연구 -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4) 하선경, 「〈적성의전〉의 인물 형상과 근대 지향 의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리적 요인에 주목했다면, 하선경의 연구는 「적성의전」의 저변에 깔린 현실적인 맥락에 주목해서 근대 지향적 의식을 드러내려 시도하고 있다. 특히 후자는 「적성의전」에서 현실주의적 측면을 매우 면밀하게 밝히려 한 시도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적성의전」에 대한 서지학적·유통론적 연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유광수의 연구 업적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연구는 「적성의전」에 대한 연구의 기저를 보다 실증적인 기반에 입각하도록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이상 「적성의전」에 관한 연구로 제출된 것 중 본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향은 대개 초기의 설화 중심의 시각에서 설화와 현실주의적 요소를 결합해서 작품을 읽어내려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설화적 요소와 현실주의적 요소는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온전히 포착하는 식으로 「적성의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적성의전」에 접근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작품에 나타난 '유희(遊俠)' 모티프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동양문고본(항목동 세책본에 근거한)을 저본으로 할 터인데<sup>16)</sup>, 이 판본에는 '협'의 요소가 등장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라는 데 주목한다.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협객'은 항의를 응징하고 있다. 이 '협'이라는 요소는 실상 매우 단순한 요소인 듯하면서도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작품에 존재하는 모순과 불일치를 해결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15) 유광수, 「구활자본 <적성의전>의 두 연원에 대하여」, 『열상 고전 연구』 32, 2010, 237~269면; 유광수,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 - 항목동 세책본 <적성의전>(1915)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29, 2010, 1443~1473면; 유광수, 「연세대 소장 <적성의전> 필사본과 초기 경판본의 관계」, 『열상 고전 연구』 28, 2008, 383~410면.

16) 「적성의전」은 이운석·허경진·윤성현·김유경·김경미 교수, 『금방울전·김원전·적성의전·만언사』, 경인문화사, 2006에 실린 것을 사용한다. 이운석이 교주한 이 「적성의전」은 항목동 세책본, 곧 일본 동양문고본을 말하는 것으로 1915년에 필사한 판본이다. 이 경인문화사 책에서 「적성의전」 원문 1권은 351~364면(총30장)에 2권은 365~377(총30장)에 제시되어 있다. 교주본은 137~196인데, 1권 137~169면, 2권 170~196면이다. 이하 인용 시에는 본문에 원문의 쪽수만 표시한다.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첫째, 『적성의전』 읽기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위 연구사의 업적에 기대면서도 형식주의적 특성과 현실주의적 측면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접근하려고 한다. 고전소설 연구, 특히 ‘이행기 소설’에서 설화와 현실성의 중층적 연구라는 조동일, 이상택, 임형택 이래의 방법론에 입각하면서도 작품 구조 내부의 불일치나 단절에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전 소설은 가장 현실주의적 소설의 경우에도 환상이나 우연 혹은 초경험적 세계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현실주의적 시각을 견지한다는 것은 작품 내에 나타나는 초현실(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도 예술 형식의 사회학<sup>17)</sup>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이러한 시각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1970년대 이래로 이런 연구는 고전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실제 연구로 제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학제적 시각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 이는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 진부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작품 해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의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당대 사회의 실제적인 요구와 작품 구조 상 요청되는 형식적 요소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범주들에 대한 고려가 없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서사의 바탕이 되는 정신사적 맥락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이 논문은 『적성의전』이라는 서사의 기저가 되는 정신사적 근거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두 방법론은 그다지 다른 것은 아니다.

셋째, 그러한 형식적 요소에 나타난 독자의 지향 혹은 욕구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내적 단절이나 모순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작품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티프들을 꿰뚫거나 봉합하는 요소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석학적 범주를 어느 정도 원용할 때 비로소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17) 다음 저작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자네트 윌프, *The Production of Art*, 이성훈·이현석 역, 『예술의 사회적 생산』, 한마당, 1987.

## 2. 서사 내부의 단절과 불일치

『적성의전』은 강남 안평국에서 왕과 왕비를 부모로 둔 형제의 이야기이다.

- ① 장자 향의는 어질지 못하고 차자 성의는 어질다. 왕과 왕비는 차자를 세자로 삼고 싶어하나, 대신들은 장자를 세자로 삼고자 하여 그 뜻을 관철시킨다.
- ② 왕비가 병이 든다. 그 병은 일영주로만 고칠 수 있으며, 그것은 성의만이 구할 수 있다고 한다.
- ③ 성의는 약수를 건너 금불보탑 존자에게서 일영주를 얻는다. 성의는 동방삭의 도움으로 병사들과 만나 안평국으로 향한다.
- ④ 성의의 성공을 두려워한 향의는 성의의 눈을 찢어 장님으로 만들고 일영주를 가지고 돌아와 성의가 불교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왕비는 성의를 그리워한다.
- ⑤ 성의는 어느 곳에 닿아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다가 중국의 호승상을 만나 중국으로 가서, 황궁의 후원에 머무르게 된다. 공주가 피리 소리를 듣고 감탄하고, 성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다.
- ⑥ 안평국에서 성의를 그리워하던 왕비가 기러기 편에 편지를 보내니 공주와 함께 있던 성의가 그 편지를 받고 그 감격으로 눈을 뜬다.
- ⑦ 황제가 성의를 부마로 삼을 것을 고려할 즈음, 성의는 장원 급제하여 황제의 부마가 된다. 성의는 말미를 얻어 안평국으로 귀환하게 된다.
- ⑧ 성의의 귀환 소식을 들은 향의가 성의를 해치려 하자 협객이 향의를 죽이고, 성의는 왕과 왕비와 상봉한다.
- ⑨ 성의는 향의의 악행을 용서하고, 구약 여행하다 죽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포상한다.
- ⑩ 황제는 태자에게 전위하고 천하는 태평을 누린다.
- ⑪ 성의가 안평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황제는 성의를 안평국 세자로 삼는다.
- ⑫ 성의는 왕과 왕비가 죽은 후 왕으로 즉위하여 태평을 누린다.

이 내용은 주인공인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남(③) → 일영주를 구하고 돌아오다가 향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함(④) → 호승상의 구조를 받

고 중국에 가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장원급제하여 공주와 결혼함(⑦)→ 안평국 왕위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⑫)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전형적인 탐색주지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소설은 주로 설화적 독법을 중심으로 읽게 된다. 이 과정에서 흔히 ⑧의 중요성은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연구사에서 후평들에는 이런 관점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8)</sup>. 곧 이러한 평가에는 불만이 있으되 그것을 이론화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잘 연구되었듯이 「적성의전」은 탐색담(①, ②, ③, ④), 결연담(⑤, ⑥, ⑦), 형제 갈등담(⑧, ⑨, ⑩, ⑪, ⑫)의 틀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형제 갈등담이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하는 것<sup>19)</sup>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정락은 이 작품에서 사회사적 맥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담의 규정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시각의 보완도 필요하다. 우리는 「적성의전」이 왕위 계승 문제를 핵심으로 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성의전」을 왕위 계승 서사로 읽는다면<sup>20)</sup> 이야기는 민담의 틀을 훌쩍 뛰어넘는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하여 하선경은 이 작품에서 풍부한 내용의 근대 지향 의식을 포착해 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성의전」이 지닌 내적 불일치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보여주었다고 하는 근대성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작품이 전통 시대라는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점을 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예컨대 공주에게서 드러나는 진취적 여성의 모습이나 개인의 욕망 문제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 작품이 지향하는 세계는 (근대적인 측면보다는) 여전히 전통적인 측면이 농후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작품에서 어떤 요소, 예컨대 근대성의 요소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18) 예컨대 '아무런 특성을 찾아볼 수 없는 유치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그러하다. 김기동, 『李朝時代 小說論』, 반도출판사, 1974, 382면.

19) 최정락, 앞의 글 참조.

20) 하선경, 앞의 글 참조.

작품 구조의 실상과 관련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그 자신의 이념으로 격상된 것이 되려면 작품 형식 내에서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상화되고 있는 인물인 성의는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대로 과연 적극적이며 이상적인 인물인가. 이러한 질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술자는 프로타고니스트인 성의를 매우 유능·유덕한 인물로 제시한다. 하지만 성의의 실상이 꼭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형 항의가 죽는 마지막 장면에서 성의는 쓰다 달다 말이 없다<sup>21)</sup>.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의는 여전히 무결한 인물인 듯이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형의 죽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떤 태도의 표현을 삼가고 있다. 말하자면 서술자는 패도(覇道)를 정당화하지만 등장인물은 패(霸)를 인정하지 않고 왕도(王道)에 머무는 듯한 모습<sup>22)</sup>이 문제의 핵심이다(왕패의 모순).

지금 성의는 내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효제(孝悌)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욕망과 효제의 모순). 그런데 서술자는 사실상 패도를 지지하는 듯이 말하면서도, 자신의 등장인물이 왕도를 지지하는 듯이 그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의식적인 왕패(王霸) 병용이 아니라 왕패가 모순이 되고 있음을 서술자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자명한 듯이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내적 단절, 이념상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고전 서사 작품에서 서사 내부의 불통일성은 부분적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그런 한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니다<sup>23)</sup>. 그러나 서사의 이념과 관련되어 있고 인물의 가치 판단이 핵심이 담긴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통일은 그 성격이 다르다. 여기서는 유희 모티프가 구조 전체에 걸치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1) 다른 판본, 예컨대 완판 74장본에서는 성의가 형에 대한 원망의 말을 노출하고 있다. “이 무삼 의수로 중노의 노와 부왕의 명영을 칭탁하고 형장이 여러 인명을 살히코자 하니 이는 진실노 괴퇴스의 주구를 살무미로다.” 이현홍 역주, 『조웅전/ 적성의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322면.

22) 『옥루몽』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다음을 참조할 것. 조광국, 「〈옥루몽〉에 나타난 왕도·패도 병용의 정치 이념 구현 양상」, 『고전 문학 연구』 15, 1999.

23) 예컨대 최진원, 「〈춘향전〉의 불합리성과 합리성」, 조동일·김홍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201~237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에서와 같은 약간의 우회가 요구된다.

### 3. 유협(의)의 역사적·미학적 의미와 구성의 문제

「적성의전」의 협(의) 모티프의 특성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 먼저 사마천의 유협(의)에 대한 논의를 파악하고, 후대에 미학적으로 변형된 협(의)의 특성을 살피고, 사마천의 「백이열전」과의 관련성을 살핀 다음, 「적성의전」의 「유협(의) 모티프」 문제로 들어가서 구성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서술한 다음 구성상의 특징인 돌발적 마무리, 곤테우스 엑스 마키나의 측면도 살피고자 한다.

#### 3.1. 「유협(의)열전」에 드러나는 협(의)의 형상

유협(의) 모티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유협(의) 열전」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유협(의) 열전」의 역사적·이론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른 논구가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할 수 있다<sup>24)</sup>. 여기서는 이 전에 나타난 실제 주인공의 인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이 전에는 포의 협객과 상충 협객과 시정의 협객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은 처음에 한비자가 협객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일<sup>25)</sup>이 인용되고, 이어 협(의)의 일반적 특성이 언급된 다음, 특이하게도 「태사공 왈」이(말미가 아니라) 중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본격적인 열전의 서사가 시작된다. 「태사공 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옛날 순임금은 우물을 파다가 매장될 뻔하였고, 이윤은 술과 도마를 잃어지고 요리를 하였으며, 부열은 부협이라는 곳에서 숨어 산 적이 있고, 여상은 극진에 살며 곤궁을 겪었다. 그리고 관중은 족쇄와 수갑을 찬 적이 있고, 백리혜는

24) 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遊俠 숭상과 遊俠傳의 성립」, 『한국 한문학 연구』 9·10, 한국한문학회, 1987, 301~352면.

25) 다음의 풍부한 설명을 참조할 것. 馮友蘭, 『中國哲學史』,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상』, 까치, 1999, 675~698 참조.

소를 먹이기도 하였으며, 공자는 광 땅에서 난을 당하여 진, 채 사이에서 식량이 떨어졌다. 그들은 모두 유가에서 인정하는 덕망 있고 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러한 재난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평범한 재능을 난세의 흐름을 건너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들이 겪은 재난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sup>26)</sup>

인용 구절에는 사마천 자신의 생애 체험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여기에는 「보임안서(報任安書)」나 「홍노 열전」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듯이, 신체 절단형을 받아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타자화된 체험을 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쓰라린 체험이 녹아 있다<sup>27)</sup>. 여기서 사마천이 주목하는 것은 힘없는 보통 사람의 고통에 관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협’에 대해서 사마천이 생각하고 있는 중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미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행위가 반드시 정의에 의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었고 행동은 과감하였으며 이미 승낙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하였다. 또한 자신의 몸을 버리고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때에는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삼았다. 아마 이밖에도 찬미할 점이 많을 것이다.”<sup>28)</sup>

여기서 보듯 반드시 정의(正義)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와 유사한 행동의 준거가 제시되고, 이어 신용, 과감성, 맡은 일에 대한 성실성,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등의 미덕이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이어서 몇몇 유명한 협사들의 생애에 대한 감동적인 기술이 이어진다. 광해와 같은 특이한 인물의 형상은 오늘날 보아도 ‘문제제 개인’의 인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거니와 다음 인용에 나타나는 주가의 모습 또한 이에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26) 司馬遷, 『史記』, 김낙철 역, 「유협열전」, 『사기 열전 하』, 까치, 1995, 1084면(밑줄은 인용자. 이하 별 지시가 없는 한 밑줄은 모두 인용자의 것임).

27) 다음 학회에서의 현지 배우 발표문에서 연구자는, 사마천이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다고 전제할 채, 그가 중국의 예제(禮制)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했음을 보이하고자 했다. 「사마천의 홍노 인식에 관하여- <홍노열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학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의』, 연변대학교, 2008. 7.2.

28) 같은 곳, 밑줄 인용자.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덕행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하였다. 그는 남의 곤란을 도울 때 먼저 빈천한 사람부터 시작하였다. 그 자신의 집안에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의복도 닳아져서 무늬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였다. 식사도 두 가지 이상의 음식을 동시에 먹는 법이 없었으며, 타는 것도 소탈구지가 고작이었다. 그는 전적으로 남의 위급한 일을 달려가서 도왔는데, 그것을 자신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는 일찍이 계포 장군을 곤란에서 몰래 구해준 적이 있었다. 계포 장군이 존귀해진 후에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았으나 그는 평생 만나지 않았다.”<sup>29)</sup>

사마천이 말하듯 협객이란 당시 전국 시대의 역사적 변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에 맞서서 지극한 연대의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로, 수많은 열전의 다른 어떤 인물에 못지않은 미덕을 보여준다. 이들 협객들은 기층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점에서 그가 쓴 또 하나의 명편인 「자객 열전」과 대비된다.

자객들의 특성은 자기를 알아주는 인물을 위해서 목숨을 초개 같이 여기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사심 없는 헌신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바가 있지만 오늘날 보기에는 맹목적인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반드시 서민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결국 자객들이 대체로 사적인 세계 속에 매몰되는 점이 많다고 한다면, 유협들의 지향은 대체로 서민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객들은 서민들의 곤궁과 위협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겉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깊은 내면과 자기충족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이들 유협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진나라의 통일 이전, 춘추·전국시대라는 역사적 규정성에 기반하고 있다. 일찍이 야스퍼스는 이 시대에 대하여 세계사적인 견지에서 ‘차축 시대(車軸時代)’라는 이름을 붙이고, 격렬한 역사적 전반기인 이 시대에 종교적인 성찰<sup>30)</sup>이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그런

29) 같은 글, 1087면.

30) Jaspers, Karl, *Vom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백승균 역, 『역사의 기원과 목표』, 이화여대출판부, 1986. 춘추전국 시대라는 격변의 시대에서 생겨난 종교적 성찰의 측면에

데 유협은 이들 종교가들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서민들의 고통에 대한 자기 반성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종교적인 길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당대의 폭력에 맞서는 것이었다면, 이들 유협의 길은 자신의 안위를 걸고서 폭력에 대항하여 ‘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문제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3.2. 후대에 변형된 협객의 형상

사마천 이후 한나라나 당나라, 송나라에서 기록된 고대적 기풍의 서민연대적인 인물의 모습은 생각처럼 많지가 않다. 10세기말 송나라에서 편찬된 방대한 서적인 『태평광기』에는 사마천이 그린 협의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태평광기』에 실려 있는 25편의 협전에는 서민연대적인 협의 모습이 드물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이제 협은 비범한 능력과 누군가를 돕는 인물 정도의 내함을 가지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다. 후에 『수호지』 같은 데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영웅적 인물이 그려지고 있지만 송나라의 관찬 서적에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협은 ‘무협’으로 발전하여 신체적인 기술만이 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sup>31)</sup>.

이런 점에서 당나라 시절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곤륜노』<sup>32)</sup>와 같은 작품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마륵은 얼굴이 검은 아랍 쪽(혹은 남해)에서 온 협객으로 곤륜노로 일컬어진다. 당나라 시절 상류 가문의 집에는 보통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 집에 최생이라는 도련님이 있는데, 어느 날 일품관(당대 최고위 벼슬)의 집에 갔다가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상사병에 걸린다. 고민하는 최생에게 무슨 일이나고 곤륜노가 묻는다. 이에 대해서 최생은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뭘 그런 일을 갖고 고민을 하느냐는 투로 곤륜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김상준, 『예의 기원과 유교적 안티노미』, 김상준·한도현·박현모·이원택·최진덕, 『유교의 예치 이념과 조선』, 청계, 2007.

31) 물론 실제 역사에서 전개된 협객의 실상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陳山, 『中國武俠史』, 姜鳳求 역, 『중국 무협사』, 동문선, 1997; 陳寶良, 『中國流氓史』, 이치수 역, 『중국 유명사』, 아카넷, 2001.

32) 李昉 外, 『太平廣記』, 김장환·이민숙 외 역, 『태평광기』·8, 학고방, 2002. 그 외에 다음에서도 번역문을 볼 수 있다. 정법진 편역, 『당대전기소설선』, 성균관대 출판부, 1975; 裴鉞, 최진아 역, 『傳奇』, 푸른숲, 2006.

노는 문제의 아가씨가 보내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해 내고, 그 집의 사나운 개를 죽이고 정해진 날에 가서 그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 (그 아가씨는 일품관이 이전에 여염집에서 탈취해 온 여성이었다.<sup>33</sup>) 그러다가 2년인가 후에 문제가 발각되어 최생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이것이 모두 다 곤륜노 짓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 일품관 쪽에서도 마루를 무서워해서 끝내 마루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데, 그후 다른 곳으로 가서 거리에서 약을 파는 일을 한다.

비범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해 주는 인물이 바로 이런 곤륜노와 같은 인물이다. 말하자면 이 인물은 상류층에게, 원하는 일을 컴퓨터 로봇과 같이 모두 해결해 주고, 심지어 문제가 생길 때 그 책임까지 떠맡을 수 있는 인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sup>34</sup>. 그야말로 환상적인 로망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의 형상이다.

이제 『곤륜노』와 같은 서사에서 협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범주라기보다는 심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범주의 역할로 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 곤륜노와 같은 인물은 사심 없는 해결사의 모습으로, ‘나’의 온갖 요구를 들어주는 인물로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조금의 위해도 가하지 않는, 매우 진취적·적극적인 우렁 각시이다. 사마천에서 유희이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인물이라면, 『곤륜노』에서는 개인의 상상적 욕구를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희은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범주에서 심리적·미적인 범주로 바뀌어 나타난다.

33) 여기서 일품관의 패악을 볼 수 있다. 정민경, 「당대 협의 소설 속의 여협」, 『중국 어문학』 12, 2002, 205면.

34) 일전에 연구자는 소속학과의 회람지의 글(『조커로서의 인물에 대하여- <곤륜노> 읽기-」, 『기린』 24, 2009)에서 이 협객 인물의 특성을 자신이 꿈꾸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조커’로 보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최생이 단지 무능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을 지극으로 도와준 인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기도 하는 파렴치한 인물로 제시되기도 하는가 하면, 협객 또한 일품관 덕에 잡혀 있는 인물을 구하기도 하는 인물, 곧 곤란에 처한 자를 ‘해방’시켜 주기도 하는 인물로 제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곤륜노』에 대한 시각이 꽤 달라진 셈이다.

### 3.3. 「적성의전」의 경우

「적성의전」의 협객은 바로 「곤륜노」와 같은 이런 인물의 형상을 계승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상층에 봉사해 주면서도 조금도 주인에게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인물인 것이다. 본래 한비자가 협을 싫어했던 이유는 협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군주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sup>35)</sup>. 유가와 묵가 또한 이와는 다른 이유에서 협을 싫어했다. 상층과 발생기(춘추전국시대)의 협은 어떤 점에서는 빙탄불상용과 같은 관계를 취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차원에서든 협은 본래 전제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곤경을 해결하는 인물로 탄생했다. 위의 「유협 열전」의 내용에서 살폈듯 이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유협의 모습에서도 그런 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sup>36)</sup>. 하지만 이런 인물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자립화해서 순수한 미학적인 기능을 하는 인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점에서 이런 유협 인물은 현실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나’ 혹은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로서 드러난다.

원래 협은 한계(극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적인 차원에서든 사적인 차원에서든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힘들 때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주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전통 사회에서 극단적이며(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등장했었다. 후에 역사적 의미가 변형되어서 등장하는 상층을 위한 협에서도 역시 비슷한 특성은 유지된다. 그러므로 상층에 봉사하는 협은 명칭만 협일 뿐 실은 자객이나 인자(忍者, 닌자)의 계기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들에게 ‘정의’라든가 ‘인(仁)’이라든가 하는 가치나 문제의 성격 자체에 대한 성찰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 누군가의 ‘소원’을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안평국의 협객」은 서술자와 독자의 불합리한

35) 이 점 때문에 한비자의 현실주의를 그대로 긍정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한비자의 시각에는 강력한 군주중심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는 다음이 대표적이다. 郭沫若, 『十批判書』, 조성을 역, 『중국고대 사상사 연구』, 까치, 1991 참조. 하지만 이 책은 풍부하고 유연한 문화적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미덕이 있으나 유교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36) 박희병, 앞의 글 참조.

욕망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극단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겠다.

원래 『적성의전』의 서사적 문제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성의를 왕위 계승자로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여기서는 악인인 항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 때 당연히 문제의 해결 주체는 성의여야 하는데, 그는 너무도 고상한 인물이어서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 더구나 조선은 유교 국가여서 효제의 원칙을 벗어나서 왕위 계승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항의(抗義)는 이름이 의를 반하는 까닭에 ‘처리’해야 하는데, 인을 뜻대로 하고 있는 성의(成義)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대속자(代贖者)로서의 인물 - 완판본에서처럼 ‘무사태연<sup>37)</sup>’이든 우리의 텍스트인 향목동 세책본에서의 ‘안평국 협객’이든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에서 종교와는 대척적인 방향에서 ‘의’를 추구하는 인물로서의 ‘유협’에 대해서 말한 셈이거니와, 일단 강고한 제국이 형성되어 그에 걸맞는 강고한 법적 질서가 확보되자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고대적 협이 설 자리는 약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필요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을 바라는 심리는 여전히 남는다<sup>38)</sup>. 여기서 상층을 위한 협이 누군가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말없이 희생해 주는 인물은 가장 소망스러운 상층의 요구라고 생각해서 무리가 없다<sup>39)</sup>.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 협객은 무뢰배로 나타난다기보다 모종의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인 듯이 그려진다. 다시 말해서 그 협객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 인물의 지고지선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가 항의를 죽일 때 설파하는 사자후(376)가 이를 응변해 주고 있다.

이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봉합하여 이념의 누수(漏水)를 봉합하는 장치가

37) 이현홍 역주, 『조용전/ 적성의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410면.

38) 조선 후기의 협전 중에서 예컨대 『각저 소년전』은 하층 지향적인 협이다. 각저 소년은 거의 초자연적인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서민을 괴롭히는 용력 과인한 승려를 처단하고 있다. 박희병·정길수 역, 『기인과 협객』, 돌베개, 2010, 15~23면.

39) 다음의 현실적 근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 요구는 이보다더 크고 넓다. “명나라 때 태감은 건달에서 집안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일단 권세를 잡은 뒤에는 도망 다니는 무뢰배를 불러들여 건달들의 상전이 되어 그들을 마음대로 마구 부렸다.” 陳寶良, 앞의 책, 401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협객은 악을 징치하고 스스로 자진해 버리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왕위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과 같은 사회적·정신사적 상황에서 형제간에 발생하는 피비린내 나는 쟁투를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형제 갈등의 예는 대단히 희귀한 것이 될 것이다<sup>40)</sup>.

여기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정신적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태종 형제의 황위 계승전을 들어 보기로 하자. 이를 다루는 사마광과 주희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사마광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편찬에 관여한 호한한 저서인 『자치통감』에서 당태종 이세민과 그의 형 이견성의 목숨을 건 대결의 모습(결국 형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을 상세하게 보여준 바 있다<sup>41)</sup>. 이에 비하면 다분히 자연적인 사물에서까지도 ‘도리’를 보는 주희에게는 이러한 일은 대단히 불편한 일일 뿐이다<sup>42)</sup>. 이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주희와 거의 동일한 경제적 역사학의 입장에서 서 있지만 천인상관론(天人相關論<sup>43)</sup>적 시각과는 별 관계없는 사마광으로서의 이런 일도 상세하고 냉정하게 기록할 수 있다<sup>44)</sup>. 이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인상관론을 인정하게 되면, 현실적·역사적인 사건의 진행에서 사건 기술 주체의 생각·희망과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관념적인 보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sup>45)</sup>.

40) 16세기 후반에 출판된(1576년) 다음 책에는 수십 명도 넘는, 왕위 계승과 관련된 형제 갈등의 예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Bodin, J.,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나정원 역,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제6권, 재정·정의론』, 아카넷, 2013, 260~269면.

41) 司馬廣, 『資治通鑑』, 권중달 역, 『자치통감·21』, 삼화, 2009.

42) 유인희, 『주희의 역사철학』, 『철학』, 23, 1985, 27~50면.

43) 이 이론의 창안자는 잘 알려진 대로 한나라 시대의 동중서이다(董仲舒, 『春秋繁露』, 남기현 역, 『춘추번로』, 자유문고, 200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 최명·손문호 역, 『중국정치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535~557면; 劉澤華, 『中國傳統政治思想反思』, 노승현 역, 『중국 고대 정치 사상』, 예문서원, 1994, 362-374면. 전자가 동중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면 후자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동중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신정근, 『동중서 - 중화주의 개막』, 태학사, 2004.

44) 이계명, 「<자치통감> 연구」, 『전남사학』 12, 1998, 119~168면.

45) 주희와 사마광의 입장 차이에 비견되는 것으로 주희와 진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둘의 논쟁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었는데 진량은 당 태종을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로 보지만 주희는 그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문교,

소설에서는 초두부터 성의가 “자라미지덕이겸비하여요순을본바드미”(351)와 같은 표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미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적성의전』에서 개인의 욕망의 문제는 인물들의 무의식적 행위나 서술자의 마음 속에서는 드러날지언정, 선언적으로는 드러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처럼 되고 있다. 이런 점이 바로 이 소설의 전통 서사로서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근대 지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 소설은 근대적인 요소의 맹아적인 범주들을 드러내면서도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그것들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sup>46)</sup>.

여기서 이 협객의 인물 형상과 『적성의전』 독자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사마천의 『백이열전』과 대비해 보자. 백이와 숙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작품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점에서 는 묘하게 비슷한 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죽국 군주인, 백이와 숙제의 아버지는 아우인 숙제를 후사로 세우려 했으나 아버지가 죽게 되자 숙제는 형인 백이에게 양위하려고 했다. 백이는 막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버님의 명이라고 하고 국외로 도망간다. 숙제도 위(位)에 오르기를 즐기지 않아서 도망해 버리니 고죽국에서는 둘째 아들을 위에 앉힌다. 그 후 백이와 숙제는 노인을 존중한다는 서백 창(문왕)이 있는 주나라로 간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서백 창이 죽었는데, 그 아들(무왕)은 은나라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둘은 무왕을 만류한다. 부왕의 장례도 안 끝나고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백이·숙제가 문제 제기를 하자 무왕은 이 둘을 배려하나, 강태공은 그들이 의인이라며 만류한다. 흥미있는 것은 무왕이 은나

---

『의리·왕패 논변-도와 역사와의 관계』, 『철학 논구』 31, 2003; 이상익, 『주자와 진량의 왕패 논쟁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138, 2007; 이승환, 「도학과와 사공학파의 공적 합리성에 관한 논쟁」, 『철학 연구』 28, 2004. 결국 이런 논의들을 참고할 때 주희에 시각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치 과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측면이 있는 듯하다. 진량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 해도, 주희에게 왕도와 패도의 모순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한다. 조심스러운 판단이지만 이 모순을 주희는 공맹이 이상화한 ‘성왕’의 이념으로 누비고자(봉합) 한 것이 아닌가 한다.

46) 이는 유학이나 주자학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준, 앞의 글을 참조할 것.

라를 평정하니 백이·숙제와는 달리 사람들이 주 무왕을 우러러 본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독하게 삶을 마감한다는 내용<sup>47)</sup>이다.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뜬금없다. 이미 전국 시대 사람들도 백이·숙제의 시대와 자신들의 시대는 달랐다고 느꼈는데 2천년도 훨씬 더 지난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왕위) 계승이라는 상황은 비슷하다고 해도 개인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백이열전』과 『적성의전』의 서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럼에도 비교가 허용되는 것은 서술자인 사마천 = 백이·숙제의 시각과 대중들의 시각 = 무왕의 시각의 명백한 대립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백이열전』에는 ‘선양’이라는 아름다운 모습과 이와는 또 다른 왕조 교체기의 역사의 실상 두 가지가 동시에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그려진 후자의 실상은 유교 경전인 『서경』에서 그려진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sup>48)</sup>. 사마천은 고대의 의인 두 사람이 접하게 되는 소위 성왕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며, 예에 입각한 것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의 역사를 인(仁)이나 예(禮)의 이념을 가지고 공자가 걸러내는 것<sup>49)</sup>에 바로 이 서사의 핵심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보면 인이나 예는, ‘보편적 질서’가 ‘우리가 세계를 그려가는 개념적인 격자를 제공하는 상징적 질서<sup>50)</sup>’라고 했을 때

47) “西伯卒 武王載木主 號爲文王 東伐紂 伯夷 叔齊叩馬而諫曰: 『父死不葬 爰及干戈 可謂孝乎? 以臣弑君 可謂仁乎?』 左右欲兵之 太公曰: 『此義人也』 扶而去之 武王已平殷亂 天下宗周 而伯夷 叔齊恥之 義不食周粟 隱於首陽山 采薇而食之 及餓且死”. 司馬遷, 『伯夷列傳』, 『史記』, 中華書局, 1959, 2123面. 김원중 역, 『사기 열전 1』, 62~63면.

48) 『서경』 첫 머리인 『우서』에는 다음과 같은, 시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문장이 제시되어 있다. “옛 요 임금에 대하여 상고해 보건대, 이름은 방훈(放勳)이라 하셨다. 공경스럽고 총명하고 우아하고 신중하시어 온유함을 느끼게 하셨고, 진실로 공손하여 겸양하시어 감화의 빛은 온 세상에 퍼져 하늘과 땅에 이르렀다.” 김학주 역, 『書經』, 명문당, 2002, 40면. 잘 알려진 것처럼 무왕은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으로 이어지는 성왕의 계보를 잇고 있다.

49) 공자가 펴낸 유교 경전(『서경』)과 역사의 실상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상준, 앞의 글 참조. 김상준은 아름다운 인의라는 모습의 비밀을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효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춘추전국 시대의 폐비린내 함병이 이루어진 전쟁 등의 사건들을 공자가 ‘예’라는 시각으로 걸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더욱 친근한 것이 될 것이다. 정복왕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듯 무서운 지배자가 아니라, 성왕(聖王)의 개념으로 부각시키는 데서 그 점을 볼 수 있다. 결국 ‘술이부작’은 자신이 직접 쓴다기보다 주로 좋은 이야기들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글쓰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이나 예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대표하도록 설계된 중요한 원리인 셈이다.

의 바로 그 보편적 질서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통해서 현실적인 모순들은 걸러지고, 서사 내부에서 그려지는 사건은 적절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백이열전」의 상황은 「적성의전」의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묘하게 닮아 있기도 하다. 「적성의전」에서 협객은 성의 대신 항의를 단죄하는 말을 한 다음 자신은 스스로 죽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376). 대신 말하기와 대신 죽기를 행하는 놀라운 상황이다. 사실 이는 「백이열전」에서 그려진 전형적인 이폭역폭(以暴易暴)<sup>51)</sup>의 상황, 곧 기존의 폭력을 새로운 폭력으로 바꾸는 것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서 사마천은 전통적인 유교 담론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앞에서 이 소설의 서사적 문제틀로서 왕위 계승의 문제를 언급했다. 아울러 이에 걸맞게 소설의 안타고니스트의 지향을 암시하는 ‘요순을 본받’는 인물의 지향도 언급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인물이 행위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빔점’의 개념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누빔점(point de capiton, fixed point)은 매트릭스를 만드는 바늘로 모양새 없는 매트릭스 속이 제멋대로 놀지 않도록 단단히 누비는 작업을 했던 곳이라는 비유에서 왔다고 한다. 이 개념은 개념들의 의미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고정된 의미라는 환상을 만들어내 주기도 한다고 이해된다<sup>52)</sup>.

유교적 생활 습속이 전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사회<sup>53)</sup>에서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규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의를 모르는 자’라는 규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인물을 ‘누빔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와의 거리를 통해서 정의되고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

50)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김종주 외 역, 『라캉 정신분석사전』, 인간사랑, 1998, 66면.

51) 司馬遷, 같은 곳.

52) Evans, 앞의 책, 53~54면. 이에 대한 지적의 설명은 여러 책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다음이 가장 상세하다. Zizek, S.,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송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53)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Deuchler, M.,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환』, 아카넷, 2003.

예와 악에 통달해 있고, 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인물인 성의는 지고지 선한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 그에 반하는 항의(抗義)와 같은 자는 ‘막돼먹은 자’로서 배척되어야 할 인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의의 나라에서 오랑캐나 어미·아버지 모르는 막돼먹은 자만큼 공포를 유발하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이들 인물은 실제보다 더한 과장적 공포를 유발하는 인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인물에게는 대개 극형이 선고되었다<sup>54</sup>). 성인이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아무 예의도 모르는 자’는 사회를 근본에서 갹아먹는 존재로 될 것이다. 일찍이 히틀러는 당대에 존재하는 다수의 불행들 뒤에 무한히 더 무서운 새로운 주제, 악의 유일한 원인을 만들고,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태인의 음모’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서 가족 위기까지 모든 지상의 불행들은 ‘유태인의 음모’의 현현”이 된다고 보았고, 그 시대의 “누빔점”이 되었다<sup>55</sup>).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들의 원인, 조치들은 이러한 유태인에 대한 환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다르지만, 할머니가 먹을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고 어린 딸을 파묻는 잔혹함을 상찬받을 일로 평가하고 있는 『삼국유사』에 실린 『손순 매아』의 이야기도 예를 범하는 것의 끔찍함이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이 두 경우는 공포 혹은 당혹감의 작동 원리에서만 본다면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sup>56</sup>). 이렇게 예를 범하는 것의 반대편 극에 ‘성군’이 존재한다. 성군도 중차대한 규정력을 가지므로, 다른 모든 의미를 통제하는 작용을 하며, 환상을 통하여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의미들을 제어하는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순적인 듯이 보이는 성왕에 가까운 인물이 행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성왕답지 않은 행위라고 해도 봉합이 될 수

54) 아주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능지처참형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Brook, Timothy e.a., *Death by a Thousand Cuts*, 박소현 역, 『능지처참 - 중국의 잔혹성과 서구의 시선』, 너머북스, 2010을 참조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책에는 이런 범죄자들이 지옥에 가서 당하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벌에 대한 그림이 실려 있다. 같은 책, 257~263면. 실제의 공포보다 더한 ‘인형적 공포’가 이런 극단적인 형벌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잔혹한 형벌인 능지처참이 ‘성왕’의 치세와 모순이 됨을 지적하여 비판한 것으로는 유명한 시인 육유(1125~1210)의 상소를 들 수 있다. 위의 책, 161~162면.

55) Žižek, S., *Le plus sublime des Hystériques*, 주형일 역,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 라캉과 함께 한 해겔, 인간사랑, 2013, 65면.

56) 이에 대해서는 문영진, 『효를 주제로 한 서사의 소통- 조선 전기까지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민족 어문학』 57, 2010, 11~13면 참조.

있다. 성격의 불일치나 상황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잘 꿰매어 놓을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주체는 자신이 느끼는 생각과 실재(the real)의 불일치를 느끼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현실의 불합리함을 특별히 감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본래 비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유희는 유교 이념의 핵심인 막돼먹은 자/ 성왕이라는 누빔점에 봉사하는 누빈 자리로 채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봉합 지점은 흔히 지나칠 수 있겠으나 맥락이나 기원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음험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유희 모티프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이 장치의 효과를 잘 감득하는 독자, 곧 당대의 이념적 자장(磁場) 안에 존재하는 해석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읽을 때 성의가 행하는 일, 곧 형제 살해는 어색하지 않은 일로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4. 테우스 엑스 마키나

결국 이런 안평국 협객의 협행은 소설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테우스 엑스 마키나(기계 장치의 신)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테우스 엑스 마키나는, 새로운 사건, 등장인물, 힘 혹은 대상의 기대하지 않은 개입에 의하여 일견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갑작스럽게 해결되는 플롯 장치<sup>57)</sup>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호라티우스 이래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고, 이런 장치가 구사된 작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 해도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sup>58)</sup>를 가진 것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sup>59)</sup>.

플롯의 수법상 안평국 협객의 협행은 서사의 결정적인 협착 상황을 돌연히

57) 테우스 엑스 마키나의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는 다음에서 온 것이다. → ([http://en.wikipedia.org/wiki/Deus\\_ex\\_machina](http://en.wikipedia.org/wiki/Deus_ex_machina)).

58) 예컨대 호라티우스는 “사건의 갈등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신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고 있다. 이 경우 신(deus)이 테우스 엑스 마키나(기계 장치의 신)를 의미할 것이다. 호라티우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187면. 이 저작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라는 단일한 제목에 묶여서 역간되었다.

59) 기계 장치의 신에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佐佐木健一, 『藝術作品の哲學』, 이기우 역, 『예술 작품의 철학』, 신아출판사, 1987, 121~147면.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테우스 엑스 마키나의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협행은 유교적 습속(에토스)과 정신사적 기반에서는 좀체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 매듭을 엮어 놓는다.

그런데 「홍부전」에도 테우스 엑스 마키나가 나타난다. 「홍부전」에는 흔히 3개 정도만으로 나타나는 홍부의 ‘소망의 박’과 판본에 따라 10여 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놀부의 현실적 성격의 박(다분히 ‘응징’이나 ‘원한 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중의 박 역할이 동시에 제시된 홍부의 박과도 유사한 어떤 점이 「적성의전」에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sup>60</sup>). 여기서 자신의 소망 충족과 악인에 대한 원한(ressentiment) 풀이가 동시에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성의전」의 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암행어사보다는 비합리적이지만 「옥단춘전」이나 「홍부전」, 「심청전」 등의 장치와도 비견되는 어떤 초경험적 장치가 있어야 했다.

「옥단춘전」의 말미에서 김진희가 옥단춘과 이혈룡을 죽이라 명하여 물에 빠뜨리려 할 때, 암행어사가 출두하게 된다. 이혈룡이 옛 친구의 죄과를 다스려 김진희를 죽이려 하다가, ‘옛정(넷정)’을 생각해 혈룡이 차마 죽이지 못할 때 ‘난디 업는 뇌성벽역’<sup>61</sup>)이 내리쳐서 김진희가 죽고 만다. 이렇게 테우스 엑스 마키나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옥단춘전」의 뇌성벽력과 「적성의전」에서의 안평국 협객은 대상물의 성격에서는 다르다 해도, 미학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등가(等價)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테우스 엑스 마키나가 모두 미학적으로 등가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 내부의 내용적·구조적 차이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일이다. 「옥단춘전」에서 테우스 엑스 마키나가 몰락 양반과 벌벌 양반의 대립을 기본으로 대결<sup>62</sup>)에서 악인으로 설정된 인물에 대한 징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적성의전」에서는 상층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층을 동원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니 역사적 경향성에서 보면 양자는 상이하다. 전자가 역사적 경향성을 반영한 다소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후자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60) 김종철, 「홍부전의 지향성 연구」, 『선청어문』 13, 1982, 107~129면.

61) 황폐강 역주, 『숙향전/ 숙영낭자전/ 옥단춘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392면.

62) 김종철, 「옥단춘전」, 김진세 편, 『한국 고전소설 작품론』, 집문당, 1990, 601~644; 박일용, 『조선 시대의 애정 소설』, 집문당, 1993, 279~302 참조.

경향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두 계열의 작품에 나타난 테우스 엑스 마키나의 성격은 다르다. 이러한 의미망과 구조의 결 안에 놓이는 것이 바로 「적성의전」에 나타난 ‘협객’의 존재가 아닌가 한다.

결국 「적성의전」을 한 편으로 하고 「홍부전」 및 「옥단춘전」을 다른 편으로 보았을 때 양자는 동일하게 테우스 엑스 마키나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는 역사적 가능성과 부합되지 않은 소망을 담고 있다면 후자는 내포 작가의 소망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능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엄밀하게 볼 때 「홍부전」에 대해서 소망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들 소설에서 나타난 테우스 엑스 마키나는 ‘현실 모순의 상상적 해결’이라는 서사 기능의 고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3)</sup>.

그런데 여기서 ‘악형’인 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항의에 대해서는 그간 애정 결핍의 희생양이라는 식의 접근은 있었으나 그의 극단적인 행위의 근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듯하다. 이 인물은 악형 계보의 인물인 놀부나 화춘(『창선감의록』)의 계보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화춘의 경우 동생을 매우 괴롭히는 인물이지만 결국에는 개과천산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항의의 진정한 계보는 『한중록』의 주인공 사도세자에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품이 남달리 곧았고 능력이 뛰어났으며, 더구나 형제간의 갈등을 겪지도 않은 사도세자를 항의에 연결시키는 것은 일견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실존 인물이었던 사도세자의 인생 역정에 항의와 비슷한 점이 없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항의가 어긋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라캉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도세자는 항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총명하고 고결한 성품을 타고 났으나 궁내의 환경과 결정적으로 아버지와의 성품의 차이에 의한 갈등과 사랑의 철회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어긋나게 되며, 아버지의 이름에서 배제(폐제)되어<sup>64)</sup> 급

63) 「적성의전」을 어리석은 부모에 의해 망해가는 나라의 알레고리로 읽을 여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닌 듯하다.

64) “경모권(사도세자)이 대답을 하면 [왕은] 그 즉시 귀를 씻으셨다.” 혜경궁 홍씨, 이선형 주해, 『한중록』, 서해문집, 2003, 114면.

기야는 개인적인 악행을 범하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sup>65)</sup>. 사도세자 역시 누비점과의 관련을 당대적 습속과 다르게 이끌고 갔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sup>66)</sup> 향의의 인생 행로와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문학사적 위상을 가능하기 위해서 잠시 외국 작품이기는 하지만 형제 갈등 서사와 모파상의 『피에르와 장』(1888)<sup>67)</sup>과 같은 근대적인 서사를 맞들어 놓아 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어느 날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된 동생이 알고 보니 어머니의 불륜의 소생임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는 형제 갈등과 부모의 부도덕함 등을 다루는 것이 용인된다는 어떤 습속적인 전제가 있어야 독자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양자의 사이에는, 오늘날 시각에서 비교해 볼 때 매우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전제가 가혹하게 가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은 모파상의 이런 이야기가 형제 갈등 이야기의 구극이라거나, 불륜과 같은 불편한 이야기가 정당하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일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살인을 포함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끔찍한 이야기들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야말로 시인이 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음<sup>68)</sup>을 상기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유교적 발상법과 삶의 태도는 근대적인 이러한 서사를 진전시키는 데 별도움을 주지는 못했던 듯하다. 근대가 모든 역사의 해답일 수는 없겠지만, 중세나 이행기를 넘어서 서사에서 총체적 접근은 『피에르와 장』에서처럼 형제 갈등의 원인을 부모의 잘못으로도 귀인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결구는 강고한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삼일 운동을 5년 정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65) “화병이 더하여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같은 책, 150면. 물론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66) “이는 어떤 중심-기표(누비점, 아버지의-이름)가 상징적 질서로부터 배제되어 정신병을 발동시키는 특수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Zizek, S.,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132면.

67) Maupassant, Guy de, *Pierre et Jean*, 정혜용 역, 『피에르와 장』, 창비, 2012.

68)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85~86면.

서사가 읽혔다는 것은 전통적 요소의 지속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적성의전』에 대하여 ‘유희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판본으로는 항목동 세책본(동양문고본)을 사용했다. 다음의 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싶다.

우선, 『적성의전』에 대하여 현실주의적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이는 설화적 접근의 필요성과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만 머무를 경우의 한계를 고려한 접근이기도 하다.

둘째, 『적성의전』은 왕위 계승 문제를 핵심적인 서사적 문제틀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적성의전』은 또한 개인의 욕망과 도리의 모순, 곧 개인의 욕망과 효제의 모순을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적성의전』에서 형제 갈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보았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테우스 엑스 마키나 수법의 일환으로 ‘안평국 협객’이 등장한다. 이는 『옥단춘전』과 흡사하다.

넷째, 여기서 협은 역사적 범주로서보다는 미적 범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상층에서 필요한 협을 드러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의 승계 욕망과 효제의 갈등에서 양자의 존재를 명확히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등장한 한계 개념이 바로 ‘유희 모티프’이다. 이것은 승계 욕망과 효제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봉사하는 ‘누빔점’(고정점)의 역할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실적 모순에 눈감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현실주의적 의의는 제한적이다. 이로써 소설은 현실적인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가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적성의전』의 문학사적 위치를 기능하기 위해서, 누빔점과 관련하여 『한중록』이, 테우스 엑스 마키나에 대해서는 『홍부전』과 『옥단춘전』이 대비되어 언급되었다.

## 〈참고문헌〉

- 박희병·정길수 역, 『각저 소년전』, 『기인과 협객』, 돌베개, 2010, 15~23면.
- 서유영,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한국고전문학전집 17』,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 이운석·허경진·윤성현·김유경·김경미 교주, 『금방울전·김원전·적성의전·만언사』, 경인문화사, 2006.
- 이헌홍 역주, 『조웅전/ 적성의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혜경궁 홍씨, 이선형 주해, 『한중록』, 서해문집, 2003.
- 황패강 역주, 『숙향전/ 숙영낭자전/ 옥단춘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 김광순, 『한국고소설사』, 국학자료원, 2001.
- 김기동, 『李朝 時代 小說論』, 반도출판사, 1974.
- 김종철, 『홍부전의 지향성 연구』, 『선청어문』 13, 1982, 107~129면.
- 김종철, 『19C 중반기 장편 영웅소설의 한 양상 - <육수기>, <옥루몽>, <육미당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0, 1985, 88~108면.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김현양, 『조선 후기 華夷觀의 동향과 <적성의전>』, 『연세 어문학』 25, 1993, 157~183면.
- 김효실, 『고소설에 나타난 형제 갈등 연구 -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도명순, 『遊俠傳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문영진, 『효를 주제로 한 서사의 소통- 조선 전기까지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민족 어문학』 57, 2010, 7~41면.
- 박준석, 『戰國時代 法家的 ‘法’개념에 관한 研究 —『韓非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遊俠 숭상과 遊俠傳의 성립』, 『한국 한문학 연구』 9·10, 한국한문학회, 1987, 301~352면.

- 박희병, 『한국 고전 인물전 연구』, 한길사, 1992.
- 신동익, 「<적성의전>에 관한 한 고찰」, 『국어국문학』 75, 1977, 29~47면.
- 신정근, 『동중서 - 중화주의 개막』, 태학사, 2004.
- 양한석, 「<적성의전>에 나타난 탐색 주지」,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1981.
- 유광수, 「구활자본 <적성의전>의 두 연원에 대하여」, 『열상 고전 연구』 32, 2010, 237~269면.
- 유광수, 「새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 - 항목동 세책본 <적성의전>(1915)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29, 2010, 1443~1473면.
- 유광수, 「연세대 소장 <적성의전> 필사본과 초기 경판본의 관계」, 『열상 고전 연구』 28, 2008, 383~410면.
- 유인희, 「주희의 역사철학」, 『철학』, 23, 1985, 27~50면.
- 이강욱,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 觀念要錄·釋迦如來十地行錄(記)·賢愚經·善事太子入海品·적성의전·육미당기-」, 『고전 문학 연구』 4, 1988, 137~167면.
- 이강욱, 「<육미당기>와 <금계필담>의 비교 분석을 통한 소설과 야담계 서사체의 관계 양상 고찰」, 『한국학보』 42, 1986, 121~145면.
- 이계명, 「<자치통감> 연구」, 『전남사학』 12, 1998, 119~168면.
- 인권환, 「<적성의전> 근원 설화 연구-인도 설화의 한국적 전개-」, 『인문론집』 8, 고려대학교, 1967, 279~326면.
- 정민경, 「당대 협의 소설 속의 여협」, 『중국 어문학』 12, 2002, 201~221면.
- 조광국, 「<옥루몽>에 나타난 왕도·패도 병용의 정치 이념 구현 양상」, 『고전 문학 연구』 15, 1999, 249~279면.
-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춘호, 「<적성의전> 연구」, 『국어 교육 연구』 15, 경북대 국어교육과, 1993, 83~107면.
- 주왕산, 『조선 고대 소설사』, 정음사, 1950.
- 최정락, 「적성의전」, 『韓國 古典小說 作品論』, 집문당, 1990.
- 최진원, 「<춘향전>의 불합리성과 합리성」, 조동일·김홍규 편, 『판소리의

-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201~237면.
- 하선경, 『<적성의전>의 인물 형상과 근대 지향 의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한용운, 『역경의 급무』, 『한용운 전집 2(증보판)』, 신구문화사, 1979, 223~228면.
- 董仲舒, 『春秋繁露』, 남기현 역, 『춘추번로』, 자유문고, 2005.
- 郭沫若, 『十批判書』, 조성을 역, 『중국고대사상사』, 까치, 1991
- 裴鏞, 『傳奇』, 최진아 역, 『전기』, 푸른숲, 2006.
- 司馬廣, 『資治通鑑』, 권중달 역, 『자치통감·21』, 삼화, 2009.
- 司馬遷, 『史記』, 김원중 역, 『사기 열전 1』, 민음사, 2007.
- 司馬遷, 『史記』, 김원중 역, 『사기 열전 2』, 민음사, 2007.
-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59.
- 李昉 外, 『太平廣記』, 김장환·이민숙 외 역, 『태평광기·8』, 학고방, 2002.
- 渡邊義浩, 『後漢 ‘儒教 國家’의 成立』, 『中國 古中世史 研究』 24, 2010, 274~306면.
-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 최명·손문호 역, 『중국정치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劉澤華, 『中國傳統政治思想反思』, 노승현 역, 『중국 고대 정치 사상』, 예문서원, 1994.
- 李鐵·蒲堅·張希坡, 『中國法制史』, 한기중·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역, 『중국 법제사』, 소나무, 2006.
- 佐佐木健一, 『藝術作品の哲學』, 이기우 역, 『예술 작품의 철학』, 신아출판사, 1987.
- 陳山, 『中國武俠史』, 姜鳳求 역, 『중국 무협사』, 동문선, 1997.
- 馮友蘭, 『中國哲學史』,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상』, 까치, 1999.
- Bodin, J.,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나정원 역,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제6권, 재정·정의론』, 아카넷, 2013
- Brook, Timothy e.a., *Death by a Thousand Cuts*, 박소현 역, 『능지처참

- 중국의 잔혹성과 서구의 시선』, 너머북스, 2010.
- Deuchler, M.,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환』, 아카넷, 2003.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김종주 외 역, 『라캉 정신분석사전』, 인간사랑, 1998.
- Jaspers, Karl, *Vom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백승균 역, 『역사의 기원과 목표』, 이화여대출판부, 1986.
- Kay, Saray, *Zizek - A critical Introduction*, 정현숙 역, 『슬라보예 지젝』,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 Lewis, M.E.,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China*, 최정섭 역,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미토, 2006.
- Wolf, J., *The Production of art*, 이성훈 · 이현석 역, 『예술의 사회적 생산』, 한마당, 1987.
- Zizek, S., *Le plus sublime des hystéques*, 주형일 역,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 라캉과 함께 한 헤겔』, 인간사랑, 2013, 50면.
- Zizek, S.,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 【국문초록】

본고는 「적성의전」에 대하여 ‘유희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연구의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적성의전」에 대하여 현실주의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적성의전」은 왕위 계승을 핵심적인 서사적 문제로 삼고 있다.

셋째, 구체적으로 「적성의전」은 형제 갈등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유희 모티프’가 등장하는데, 이는 일종의 ‘테우스 엑스 마키나’의 수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여기서 유희는 역사적 범주로서보다는 미적 범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개인의 승계 욕망과 효제의 갈등에서 양자의 존재를 명확히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등장한 한계 개념이 바로 ‘유희 모티프’이다. 이것은 누빔점(고정점)의 개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섯째, 「적성의전」의 문학사적 위치 문제에서, 누빔점과 관련해서는 『한중록』이, 테우스 엑스 마키나에 대해서는 「홍부전」과 「옥단춘전」 등이 비교준거로서 거론되었다.

주제어 : 왕위 계승, 형제 갈등, 협객(유희), 테우스 엑스 마키나, 미적 범주로서의 유희, 누빔점(고정점)

【Abstracts】

## A Study of Jeokseonggeui Jeon – focusing on Yuhyeop motif –

Moon, Youngjin

This paper is a research on *Jeokseonggeui Jeon*(『적성의전』) focusing on yuhyeop(遊俠) motif. Som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ly,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study, it is good to introduce the realistic perspective. Secondly, *Jeokseonggeui Jeon's* essential problematic is succession to the throne. Thirdly, *Jeokseonggeui Jeon's* concrete problematic is conflict between brothers. For the purpose of this problematic the 'yuhyeop motif' is introduced. This motif is some sort of 'deus ex machina'. Lastly, the yuhyeop motif is a characteristic of aesthetic rather than historical category. The solution to the inner struggle between the desire for succession to the throne and the Hyoje(孝悌) is by means of the yuhyeop motif. This yuhyeop motif is a sort of the marginal concept, and related to *point de capiton*(fixed point, anchor point).

Key words : succession to the throne, conflict between brothers, Yuhyeop(遊俠), deus ex machina, Yuhyeop as aesthetic category, point de capiton(fixed point, anchor point)

이 논문은 2015년 1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